

December 26, 2006

세계일보

일찍 : 2006.12.26 (화) 19:11

법륜 스님 "북한 주민들, 내년에 대량 아사 위기"

곡물 수확량 줄고 지원 중단으로 식량난 심각



◇'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 주제의 토론회가 26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왼쪽) 사회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곡물 수확량 저조와 외부지원 중단으로 내년에 대량 아사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 벗들'의 법륜 스님은 26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평화재단 주최 '북한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서 아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확량이 평년작 수준인 430만t이 돼야 하지만 올해 가을 생산량은 280만t에 그쳐 대량 아사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륜 스님은 "지난해 북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생산량인 450만t의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300만명의 아사자를 낳았을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법륜 스님은 "1996~98년 당시에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50만~280만t이었고 외부에서 수입 및 지원 곡물을 포함하면 350만t 이상의 식량이 공급됐다"며 "그럼에도 300만명 이상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때 내년도 식량위기는 대량의 아사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식량배급제시스템에서 제외된 4순위 사회계층 중 장사를 하지 못하거나, 경작지가 없거나,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식량 부족으로 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ecember 26, 2006

세계일보

Übersetzung

Mönch Beobryun: „Gefahr eines Massenhungertods im nordkoreanischen Volk“

Gemeinsame Veranstaltung der Konrad-Adenauer-Stiftung und der Peace Foundation zum Thema „Erneute Hungersnot in Nordkorea?“